

##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김 혜 정 · 조 복 희<sup>\*</sup>

\*광주백운초등학교,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5-6th year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Hye-Jung Kim\* · Bok-Hee Cho\*\*

\*Guangju Baegun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5-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and to provide some basic data to develop a program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ternet addiction.

The study is the research of the descriptive correlation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43 students from 5th and 6th year children of four elementary schools in four districts which are located in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AS program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chi^2$ -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boys were 50.5%, girls 49.5% and 5th grade students were 48.4%, 6th grade 51.6%. The purposes of the internet using were e-mail 40.3%, game 37.5%.
2. In the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were 4.5% of addiction, 38.7% of addiction tendency and 56.8% of non-addiction.
3. The score range of the degree of the mental health index of the subjects' were 26~28, mean 47.8.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index( $F=34.01$ ,  $p= .000$ ) to the degree of the internet addiction.
5.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mental health index( $r=-0.342$ ,  $p= .000$ ).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e students who are in high-grade in elementary school have already addicted to using of the internet as much as the youth and the more they addicted to the internet, the lower mental health index they have. According to increasing of the using internet amo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m have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 program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internet addiction.

---

Key words: safety procedure, safety living activity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류 문명에 혁명적 변화를 물고 온 인터넷은 30여년 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9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안석, 2000).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쳐 컴퓨터 활용이 필수사항으로 인식되고 정부차원에서 통신보급에 앞장서서 추진한 결과 그 사용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국내 인터넷 이용률은 만 7세 이상 인구 중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56.6%(2,438만 명)이며, 연령별로는 7~19세의 이용률이 93.3%(843만 명)로 가장 높고, 이중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88.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다양한 인터넷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이소영, 2000), 그 이용도 가 지나치다 보면 인터넷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현실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상현상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이봉건, 1999).

인터넷의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신체적으로는 팔과 어깨,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소화불량, 수면 부족, 두통을 일으키며, 심리적으로 우울과 조울, 외로움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여 학교나 교우관계 등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Orzack, 2002; Young, 1999). 인터넷은 주로 성인위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영향은 특히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더 큰 피해의 우려가 있다. 아울러 아동은 발달과정 속의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그 피해가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절제 한 몰입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이선애, 2001).

모든 중독의 대상이 갖고 있는 공통적 속성은 회피성(escapist)이다. 즉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때, 개인에게 현실세계와 다른 가상의 도피처를 제공함으로써,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황수정, 2000; Young, Pistner, O'Mara & Buchanan, 1999). 인터넷은 접근가능성, 통제감, 흥미감, 익명성, 비동시성, 상호작용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통제감의 상실로 인해 쉽게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이소영, 2000; 황수정, 2000; Young et al., 1999; Young, 2002b). 또한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은 대인관계, 성격, 행동양상이나 태도, 사회적 발달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웅장, 2002; 임효정, 1999; Powers, Hauser & Kilner, 1989).

인터넷 중독이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 강박증, 신체화,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옥순, 홍혜영, 강형분, 1998; 임효정, 1999; 윤재희, 1998; Young & Rodgers, 199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정신병리적 측면에 치우쳐져 있어 인터넷 중독과 대상자의 다양한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발달양상까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평가 해 주지는 못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층이 점차 확대되면서 인터넷 이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김재수, 2000), 초등학생에게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점이 심각하리라 예상되지만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5·6학년은 청소년기 초기의 양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고(이선애, 2001), 초등학교 3·4학년 때에 70%이상이 인터넷을 시작하므로(김진순, 2002) 인터넷행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직접 시작하는 이 시기 아동의 인터넷 활용 실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이선애, 2001).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정도를 파악하고 자아, 사회적지지, 정신병리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신건강도구를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정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파악한다.
- 2)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정신건강정도를 파악한다.
- 3)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파악한다.
- 4)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정도를 파악한다.
- 5)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18개 초등학교 중에서 구를 달리하여 4개교를 편의표집한 후, 각 학교에서 5학년 2학급, 6학년 2학급씩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총 16개 학급 6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인터넷 중독 척도

본 도구는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척도로, Young이 제작한 인터넷 중독 척도를 윤재희(1998)가 번안하였고 이를 청소년에 맞게 이소영(2000)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인터넷이나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 대인관계성향의 변화, 학업에서의 장애여부, 통제 절제력의 여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배점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윤재희(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79이었고, 이소영(2000) 연구에서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척도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인터넷중독 점수가 20점에서 49점까지인 경우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정상적 인터넷

사용자로, 50점에서 79점까지는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는 중독 경향자로, 80점 이상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했다(Young, 2002a).

##### 2) 정신건강 척도

정신건강 측정도구는 이시형 등(1997)이 포괄적인 생물·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정의하여 청소년용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총 89문항으로 3개 영역의 차원 즉, 자아척도 30문항, 사회적 지지척도 12문항, 정신병리척도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2점, '약간 그렇다'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을 주었고, 자아척도와 사회적지지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병리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지수는 자아척도와 사회적지지 척도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정신 병리척도의 총점 환산점수를 빼서 구한 값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가 좋음을 의미하며 다음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text{정신건강지수} = \frac{\text{자아척도 환산점수} + \text{사회적지지 환산점수}}{-\text{정신병리 총점 환산점수}}$$

본 도구의 신뢰도는 이시형 등(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자아척도 .81, 사회적지지척도 .85, 정신병리척도 .9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는 자아척도 .85, 사회적지지 척도 .86, 정신병리 척도 .95 이었다.

#### 3. 자료수집 방법

2002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일 초등학교 5, 6학년 각각 2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2년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G광역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64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 및 설문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조사 당일 연구자가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 전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4

부를 제외한 643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 분류를 기준으로 세 군으로 분류한 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정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로 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6)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특성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이 50.5%, 여학생이 49.5%였고, 5학년이 48.4%, 6학년이 51.6%였다. 학업성적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대다수였으며(72.8%), 생활수준도 72.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분위기가 보통이거나 화목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97.5%), 부모학력은 고졸이상이 아버지가 82.7%, 어머니가 78.7%였고, 부모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학생도 49.5%였다(표 1-1).

##### 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특성

학생들의 인터넷 하루 사용시간은 1~2시간 이하가 78.2%로 가장 많았고, 처음 시작시기는 3~4학년 때가 66.0%로 가장 많았다. 컴퓨터 설치장소는 본인의 방이 34.0%, 거실 29.4%, 형제의 방 14.1% 순 이었으며 기타(22.5%)의 내용으로는 부모님의 방, 서재,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43)

| 특 성    | 구 分       | 명(%)      |
|--------|-----------|-----------|
| 성별     | 남         | 325(50.5) |
|        | 여         | 318(49.5) |
| 학년     | 5학년       | 311(48.4) |
|        | 6학년       | 332(51.6) |
| 학업성적   | 잘하는 편     | 127(19.9) |
|        | 보통        | 465(72.8) |
|        | 못하는 편     | 47( 7.3)  |
| 생활수준   | 잘사는 편     | 167(26.3) |
|        | 보통        | 459(72.4) |
|        | 못사는 편     | 8( 1.3)   |
| 가족 분위기 | 화목한 편     | 391(61.7) |
|        | 보통        | 227(35.8) |
|        | 화목하지 않은 편 | 16( 2.5)  |
| 부 학력   | 대졸이상      | 279(49.4) |
|        | 고졸        | 188(33.3) |
|        | 중졸이하      | 37( 6.5)  |
|        | 무응답       | 61(10.8)  |
| 모 학력   | 대졸이상      | 210(37.6) |
|        | 고졸        | 230(41.1) |
|        | 중졸이하      | 60(10.7)  |
|        | 무응답       | 59(10.6)  |
| 부모직장   | 아버지만 가짐   | 298(46.5) |
|        | 어머니만 가짐   | 11( 1.7)  |
|        | 부모 모두 가짐  | 317(49.5) |
|        | 부모 모두 안가짐 | 6( .9)    |
|        | 무응답       | 9( 1.4)   |

식당 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터넷 이용장소는 집이 85.4%로 가장 많았고 PC방이 8.1%였다. 인터넷 사용이유는 이메일 40.3%, 게임 37.5%, 정보검색 16.5% 순 이었으며 기타의 내용으로는 채팅, 음악 등

운로드, 동호회 활동 등이 있었다(표 1-2).

표 1-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관련 특성

| 특 성       | 구 分    | 명(%)      |
|-----------|--------|-----------|
| 하루 사용 시간  | 1시간미만  | 256(40.0) |
|           | 1시간이상  | 245(38.2) |
|           | ~2시간미만 |           |
|           | 2시간이상  | 140(21.8) |
| 처음 시작 시기  | 입학 전   | 18( 2.8)  |
|           | 1~2학년  | 111(17.3) |
|           | 3~4학년  | 424(66.0) |
|           | 5~6학년  | 89(13.9)  |
| 컴퓨터 설치 장소 | 본인의 방  | 216(34.0) |
|           | 형제의 방  | 90(14.1)  |
|           | 거실     | 187(29.4) |
|           | 기타     | 143(22.5) |
| 인터넷 이용 장소 | 집      | 539(85.4) |
|           | 학교     | 20( 3.2)  |
|           | PC방    | 51( 8.1)  |
|           | 기타     | 21(3.3)   |
| 인터넷 사용 이유 | 정보검색   | 104(16.5) |
|           | 이메일    | 254(40.3) |
|           | 게임     | 236(37.5) |
|           | 기타     | 36(5.7)   |

##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중독군이 4.5%(29명), 중독경향군이 38.7%(249명), 비중독군이 56.8%(365명)였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 인터넷 중독 정도 | 점수범위   | 빈도(%)     |
|-----------|--------|-----------|
| 중독        | 80~100 | 29( 4.5)  |
| 중독경향      | 50~ 79 | 249(38.7) |
| 비중독       | 20~ 49 | 365(56.8) |

## 3.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도

대상자의 정신건강지수 범위는 26~86점이었으며, 평균은 47.8점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척도는 정서자아, 학업자아, 대처자아, 신체자아 및 도덕자아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아척도는 점수범위가 24~85점으로, 평균 51.3점이었다. 정서자아는 범위가 0~24점으로, 평균 13.4점, 학업자아는 점수범위가 2~20점으로, 평균 11.8점, 대처자아는 범위가 1~15점으로, 평균 8.6점, 신체자아는 범위가 1~12점으로, 평균 7.1점, 도덕자아는 범위가 4~18점으로, 평균 10.3점이었다.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가족지지와 친구·친지지지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지지척도 점수범위는 2~36점, 평균 21.5점이었다. 가족지지 척도 점수범위는 0~18점, 평균 12.5점이었고, 친구·친지지지척도 점수범위는 0~18점, 평균 9.0점이었다.

대상자의 정신병리척도는 정신병리1(정동), 정신병리2(신경증), 정신병리3(정신병), 정신병리4(신체화), 정신병리5(행동화)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정신병리척도 점수범위는 0~141점, 평균 46.0점이었다. 정신병리1(정동)은 0~36점, 평균 13.3점, 정신병리2(신경증)은 0~42점, 평균 13.4점, 정신병리3(정신병)은 0~24점, 평균 7.1점, 정신병리4(신체화)는 0~15점, 평균 4.1점, 정신병리5(행동화)는 0~24점, 평균 8.1점이었다(표 3).

표 3.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도

| 구 분        | 점수범위   | 평균±표준편차    |
|------------|--------|------------|
| 자아척도       | 24~ 85 | 51.3±10.66 |
| 정서자아       | 0~ 24  | 13.4± 3.88 |
| 학업자아       | 2~ 20  | 11.8± 3.40 |
| 대처자아       | 1~ 15  | 8.6± 2.41  |
| 신체자아       | 1~ 12  | 7.1± 2.22  |
| 도덕자아       | 4~ 18  | 10.3± 2.63 |
| 사회적지지척도    | 2~ 36  | 21.5± 7.01 |
| 가족지지       | 0~ 18  | 12.5± 4.13 |
| 친구, 친지지지   | 0~ 18  | 9.0± 4.08  |
| 정신병리척도     | 0~141  | 46.0±23.27 |
| 정신병리1(정동)  | 0~ 36  | 13.3± 6.77 |
| 정신병리2(신경증) | 0~ 42  | 13.4± 7.41 |
| 정신병리3(정신병) | 0~ 24  | 7.1± 5.33  |
| 정신병리4(신체화) | 0~ 15  | 4.1± 3.25  |
| 정신병리5(행동화) | 0~ 24  | 8.1± 4.87  |
| 정신건강지수     | 26~ 86 | 47.8±11.40 |

####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를 살펴보면, 중독군이 평균 42.0점으로 비중독군의 50.9점보다 정신건강지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F=34.01$ ,  $p=.000$ ). 각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정한 결과 정신건강지수는 중독군과 중독경향군이 비중독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1).

표 4-1.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지수

| 인터넷 중독 정도 | 정신건강지수     |   | F     | $p$  |
|-----------|------------|---|-------|------|
|           | (M±SD)     |   |       |      |
| 중독        | 42.0±14.38 |   |       |      |
| 중독경향      | 44.0±10.00 | * | 34.01 | .000 |
| 비중독       | 50.9±11.06 |   |       |      |

\* Duncan test;  $p<.0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자아척도, 사회적지지척도, 정신병리척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척도는 중독군이 46.7점, 중독경향군이 46.3점, 비중독군이 51.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7.63$ ,  $p=.000$ ). 사회적지지 척도는 중독군이 48.6점, 중독경향군이 50.1점, 비중독군이 5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58$ ,  $p=.011$ ), 정신병리척도는 중독군이 64.7점, 중독경향군이 59.5점, 비중독군이 52.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7.83$ ,

$p=.000$ ).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한 결과 자아척도는 중독군과 중독경향군이 비중독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지지척도는 중독군과 비중독군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신병리척도는 중독군, 중독경향군, 비중독군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2).

#### 5. 대상자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인구학적 특성 중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성별과 학년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중독군이 7.7%, 중독경향군이 49.5%, 비중독군이 42.8%였고, 여학생의 경우 전체의 1.2%가 중독군, 27.7%가 중독경향군, 71.1%가 비중독군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57.28$ ,  $p=.001$ ). 학년별로는 5학년의 경우 중독군이 3.9%, 비중독군 63.0%이었고, 6학년의 경우 5.1%가 중독군, 50.9%가 비중독군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9.30$ ,  $p=.010$ ).

학교 및 가정관련 특성 중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학업성적, 가족 분위기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었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편에서 중독군이 3.2%, 못하는 편에서 중독군이 21.3%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34.39$ ,  $p=.001$ ). 가족분위기에 따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화목하지 않은 경우에 화목한 경우보다 높은 편이었다( $\chi^2=26.27$ ,  $p=.001$ ). 부모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는 어머니의 학력에서 중졸이하인 경우의 중독경향군(45.0%)이 대졸이상인 경우의 중독경향군(37.6%)보

표 4-2.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영역별 비교

| 인터넷중독정도 | 자아척도       |   | F<br>(p)        | 사회적지지척도    |   | F<br>(p)       | 정신병리척도     |   | F<br>(p)        |
|---------|------------|---|-----------------|------------|---|----------------|------------|---|-----------------|
|         | (M±SD)     |   |                 | (M±SD)     |   |                | (M±SD)     |   |                 |
| 중독      | 46.7±15.10 |   |                 | 48.6±15.65 |   |                | 64.7±13.75 |   |                 |
| 중독경향    | 46.3±10.62 | * | 17.63<br>(.000) | 50.1±10.21 | * | 4.58<br>(.011) | 59.5±8.68  | * | 57.83<br>(.000) |
| 비중독     | 51.8±11.65 |   |                 | 52.5±10.70 |   |                | 52.5±8.88  |   |                 |

\* Duncan test;  $p<.05$

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4.04$ ,  $p=.029$ )(표 5-1).

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실태 특성 중 인터넷 중독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하루 사용시간과 인터넷 사용이유였다. 즉 하루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중독군 1.2%, 비중독군 73.0%로 2시간 이상

표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 특 성   | 구 분       | 중 독      | 중독경향      | 비중독       | $\chi^2$ | $p$  |
|-------|-----------|----------|-----------|-----------|----------|------|
|       |           | N(%)     | N(%)      | N(%)      |          |      |
| 성별    | 남         | 25( 7.7) | 161(49.5) | 139(42.8) | 57.28    | .001 |
|       | 여         | 4( 1.2)  | 88(27.7)  | 226(71.1) |          |      |
| 학년    | 5학년       | 12( 3.9) | 103(33.1) | 196(63.0) | 9.30     | .010 |
|       | 6학년       | 17( 5.1) | 146(44.0) | 169(50.9) |          |      |
| 학업성적  | 잘하는 편     | 4( 3.2)  | 45(35.4)  | 78(61.4)  | 34.39    | .001 |
|       | 보통        | 15( 3.2) | 189(40.7) | 261(56.1) |          |      |
|       | 못하는 편     | 10(21.3) | 13(27.7)  | 24(51.0)  |          |      |
| 생활수준  | 잘사는 편     | 6( 3.6)  | 52(31.1)  | 109(65.3) | 8.22     | .084 |
|       | 보통        | 22( 4.8) | 192(41.8) | 245(53.4) |          |      |
|       | 못사는 편     | 1(12.5)  | 3(37.5)   | 4(50.0)   |          |      |
| 가족분위기 | 화목한 편     | 14( 3.6) | 128(32.7) | 249(63.7) | 26.27    | .001 |
|       | 보통        | 13( 5.8) | 107(47.1) | 107(47.1) |          |      |
|       | 화목하지 않은 편 | 2(12.5)  | 11(68.8)  | 3(18.7)   |          |      |
| 부학력   | 대출이상      | 11( 3.9) | 102(36.6) | 166(59.5) | 9.89     | .129 |
|       | 고졸        | 6( 3.2)  | 73(38.8)  | 109(58.0) |          |      |
|       | 중졸이하      | 1( 2.7)  | 17(46.0)  | 19(51.3)  |          |      |
|       | 무응답       | 7(11.5)  | 24(39.3)  | 30(49.2)  |          |      |
| 모학력   | 대출이상      | 9( 4.3)  | 79(37.6)  | 122(58.1) | 14.04    | .029 |
|       | 고졸        | 7( 3.0)  | 85(37.0)  | 138(60.0) |          |      |
|       | 중졸이하      | 1( 1.7)  | 27(45.0)  | 32(53.3)  |          |      |
|       | 무응답       | 7(11.9)  | 27(45.7)  | 25(42.4)  |          |      |
| 부모직장  | 아버지만 가짐   | 14( 4.7) | 112(37.6) | 172(57.7) | 8.80     | .360 |
|       | 어머니만 가짐   | 1( 9.1)  | 3(27.3)   | 7(63.6)   |          |      |
|       | 부모 모두 가짐  | 12( 3.8) | 124(39.1) | 181(57.1) |          |      |
|       | 부모 모두 안가짐 | 1(16.7)  | 4(66.6)   | 1(16.7)   |          |      |
|       | 무응답       | 1(11.1)  | 5(55.6)   | 3(33.3)   |          |      |

인 경우의 중독군 15.0%, 비중독군 26.4%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04.02$ ,  $p=.001$ ). 인터넷 사용이유에 따라 정보검색형이 중독군 1.9%, 비중독군 78.9%로 게임형의 중독군 8.0%, 비중독군 35.2%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82.20$ ,  $p=.001$ )(표 5-2).

### 6.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

인구학적 및 학교 관련 특성 중 정신건강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성별과 학업성적이었다. 즉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남학생이 49.0점으로 여학생의 46.6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t=2.69$ ,  $p=.007$ ), 학업성적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잘하는 편’이 54.8점으로 ‘못하는 편’의 39.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F=41.82$ ,  $p=.000$ ). 학업성적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한 결과, 정신건강지수는

‘잘하는 편’, ‘보통’, ‘못하는 편’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관련 특성 중 정신건강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생활수준, 가족분위기,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이었다. 즉 생활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잘사는 편’이 54.9점으로 ‘보통’의 45.3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F=49.89$ ,  $p=.000$ ), 가족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화목한 편’이 51.1점으로 ‘화목하지 않은 편’의 34.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F=52.40$ ,  $p=.000$ ).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대출이상’이 50.4점으로 ‘중졸이하’의 46.0점이나 ‘무응답’의 43.4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F=8.55$ ,  $p=.000$ ),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대출이상’이 51.5점으로 ‘중졸이하’의 44.5점이나 ‘무응답’의 44.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F=11.50$ ,  $p=.000$ ).

표 5-2.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 특 성     | 구 分    | 중<br>독   | 중독경향      | 비중독       | $\chi^2$ | $p$  |
|---------|--------|----------|-----------|-----------|----------|------|
|         |        | N(%)     | N(%)      | N(%)      |          |      |
| 하루사용시간  | 1시간미만  | 3( 1.2)  | 66(25.8)  | 187(73.0) | 104.02   | .001 |
|         | 1시간이상  | 5( 2.1)  | 101(41.2) | 139(56.7) |          |      |
|         | ~2시간미만 |          |           |           |          |      |
|         | 2시간이상  | 21(15.0) | 82(58.6)  | 37(26.4)  |          |      |
| 처음시작시기  | 입학 전   | 1( 5.6)  | 7(38.9)   | 10(55.5)  | 5.10     | .531 |
|         | 1~2학년  | 2( 1.8)  | 51(46.0)  | 58(52.2)  |          |      |
|         | 3~4학년  | 21( 4.9) | 155(36.6) | 248(58.5) |          |      |
|         | 5~6학년  | 5( 5.6)  | 36(40.5)  | 48(53.9)  |          |      |
| 컴퓨터설치장소 | 본인의 방  | 15( 7.0) | 88(40.7)  | 113(52.3) | 8.51     | .203 |
|         | 형제의 방  | 4( 4.4)  | 35(38.9)  | 51(56.7)  |          |      |
|         | 거실     | 3( 1.6)  | 68(36.4)  | 116(62.0) |          |      |
|         | 기타     | 7( 4.9)  | 54(37.8)  | 82(57.3)  |          |      |
| 인터넷이용장소 | 집      | 25( 4.6) | 211(39.2) | 303(56.2) | 6.18     | .403 |
|         | 학교     | 0( .0)   | 4(20.0)   | 16(80.0)  |          |      |
|         | PC방    | 3( 5.9)  | 21(41.2)  | 27(52.9)  |          |      |
|         | 기타     | 0( .0)   | 8(38.1)   | 13(61.9)  |          |      |
| 인터넷사용이유 | 정보검색   | 2( 1.9)  | 20(19.2)  | 82(78.9)  | 77.05    | .001 |
|         | 이메일    | 6( 2.4)  | 83(32.7)  | 165(64.9) |          |      |
|         | 게임     | 19( 8.0) | 134(56.8) | 83(35.2)  |          |      |
|         | 기타     | 2(5.6)   | 9(25.0)   | 25(69.4)  |          |      |

각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후 검정한 결과, 생활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잘사는 편'이 '보통'과 '못사는 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지수에서는 '화목한 편', '보통', '화목하지 않은 편'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버지 학력에 따른 정신건강지수는 '대졸이상'이 '중졸이하', '무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정신건강지수에서는 '대졸이상'이 '고졸', '중졸이하', '무응답'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

| 특 성   | 구 분       | Mental health index<br>(M±SD) |  | t or F | p    |
|-------|-----------|-------------------------------|--|--------|------|
|       |           |                               |  |        |      |
| 성별    | 남         | 49.0±12.10                    |  | 2.69   | .007 |
|       | 여         | 46.6±10.52                    |  |        |      |
| 학년    | 5학년       | 48.2±11.49                    |  | 0.78   | .434 |
|       | 6학년       | 47.5±11.32                    |  |        |      |
| 학업성적  | 잘하는 편     | 54.8±12.56                    |  | 41.82  | .000 |
|       | 보통        | 46.7±10.16                    |  |        |      |
|       | 못하는 편     | 39.9±11.10                    |  |        |      |
| 생활수준  | 잘사는 편     | 54.9±12.39                    |  | 49.89  | .000 |
|       | 보통        | 45.3± 9.86                    |  |        |      |
|       | 못사는 편     | 45.9±13.79                    |  |        |      |
| 가족분위기 | 화목한 편     | 51.1±11.20                    |  | 52.40  | .000 |
|       | 보통        | 43.4± 9.50                    |  |        |      |
|       | 못사는 편     | 34.2± 8.30                    |  |        |      |
| 부학력   | 대졸이상      | 50.4±12.29                    |  | 8.55   | .000 |
|       | 고졸        | 46.9±10.53                    |  |        |      |
|       | 중졸이하      | 46.0± 7.07                    |  |        |      |
|       | 무응답       | 43.4±10.81                    |  |        |      |
| 모학력   | 대졸이상      | 51.5±12.49                    |  | 11.50  | .000 |
|       | 고졸        | 46.9±10.59                    |  |        |      |
|       | 중졸이하      | 44.5± 8.95                    |  |        |      |
|       | 무응답       | 44.2±11.28                    |  |        |      |
| 부모직장  | 아버지만 가짐   | 47.9±11.75                    |  | 1.77   | .133 |
|       | 어머니만 가짐   | 41.2± 9.71                    |  |        |      |
|       | 부모 모두 가짐  | 48.2±11.01                    |  |        |      |
|       | 부모 모두 안가짐 | 42.2±11.21                    |  |        |      |
|       | 무응답       | 43.2±10.65                    |  |        |      |

### 7. 인터넷 중독 점수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인터넷 중독점수와 정신건강정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정도가 낮았다( $r=-0.342$ ,  $p=.000$ ). 인터넷 중독점수와 정신건강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를 보면, 인터넷 중독은 자아척도( $r=-0.256$ ,  $p=.000$ )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신병리척도( $r=0.411$ ,  $p=.000$ )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7).

표 7. 인터넷 중독점수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 구 분    | 인터넷 중독 점수<br>$r(p)$ |
|--------|---------------------|
| 자아     | -0.256(. .000)      |
| 사회적 지지 | -0.143(. .000)      |
| 정신병리   | 0.411(. .000)       |
| 정신건강정도 | -0.342(. .000)      |

## V. 논 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터넷 사용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우리사회는 급속히 정보화사회로 변모되면서 생활양식의 변화와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中最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중독이다(서주현, 2001).

인터넷 사용의 급증과 함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인터넷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실태와 그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보면, 전체의 4.5% 가 중독군, 38.7%가 중독경향군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을 파악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주현(2001)의 연구에서는 중독군이 2.7%, 중독경향군이 37.8%이었으며,

박병훈 등(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독군이 3.1%, 중독경향군이 18.9%으로,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정도가 선행연구에 비해 높음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2~3년 사이에 컴퓨터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학업과 입시에 매달리는 중·고등학생 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200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중·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실태에 대한 반복연구와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심리·사회적인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한 이시형 등(1997)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아척도, 사회적지지척도 및 정신병리척도를 포함한 정신건강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지수는 평균 47.8이었다. 자아척도 점수는 평균 51.3점이었고, 사회적지지척도 점수는 평균 21.5이었으며, 정신병리척도 점수는 평균 46.0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이시형 등, 1997; 정순복, 2001)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자아척도, 사회적지지척도, 정신건강지수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정신병리척도에서 이시형 등(1997)의 연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이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정도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은 다르지만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김옥순 등, 1998; 김웅장, 2002; 임효정, 2000). 또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송원영, 1998; 이명수 등, 2001; 이주연, 2000; 윤재희, 1998; 최민정, 2000; 황수정, 2000; Young & Rodgers, 1998). 이는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는 아동들이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상을 가지고 익명성과 자신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는 통신상의 장점 때문에 인터넷에 몰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주연, 2000), 자신을 둘러싼 지지원의 사회적 지지가 적었다고 지각하는 집단에서 인터

넷 중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황수정, 2000). 또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 불안감, 우울감, 공격성 등이 중독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들이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 탈 억제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웅장, 2002). 따라서 중독아동에게 가족, 친구,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명백한 중독 성향을 보이기 전에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아이가 인터넷 중독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이시형 등(2000), 서주현(2001), 안석(2000), 이재수(2000), Anderson(2001), Yang(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이시형 등, 2000; 서주현, 2001; Young, 1998; Young, 2002c) 인터넷 사용이유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정보검색보다는 게임, 오락활동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학생이 중독성이 강한 게임과 오락활동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자연히 커졌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정도가 학년, 학업성적, 생활수준, 가족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과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분석한 결과 하루 사용시간과 인터넷 사용이유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루 사용시간이 많을 수록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다고 나타난 결과는 양소남(1996), 이명수 등(2001), 윤재희(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인터넷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수(2000)는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아동 혼자만이 인터넷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주고 1일 접속 횟수를 지정해주는 등 부모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터넷 사용이유로 인터넷 중독군에서는 게임과 이메일을, 비중독군에서는 정보검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형, 통신형, 오락형 세 유

형으로 나누어 통신중독을 본 윤영민(2000) 연구에서 정보형보다 통신형이, 통신형보다 게임·오락형이 통신중독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며 다른 선행연구들(김재수, 2000; 이명수 등, 2001; 이봉건, 1997; Young, 1996a)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컴퓨터와 학습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검색의 유용성 및 활용을 강조하고 올바른 컴퓨터 사용행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장소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독군의 대부분이 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경향이 심할수록 주로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이명수 등(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정신건강지수가 여학생보다 높았고,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건강은 그들이 속한 학교 및 가정의 구조적인 환경이나 기능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정순복, 2001; 왕일, 1996)과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그들의 주된 생활의 장(場)인 가정과 학교환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김옥순 등(1998), 이명수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특히 정신건강의 정신병리 영역과 높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의 논의를 통해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자아체도, 사회적지지체도, 정신병리체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아동기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되었으며 또한 인터넷 중독군에서 정신건강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아동기에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형성과 아동들간의 바람직한 인터넷 행동윤리가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차원에서의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알아보고 인터넷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2002년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초등학교 5, 6학년 643명을 대상으로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도구는 Young이 개발하고 이소영(2000)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한 인터넷 중독 척도와, 이시형 등(1997)이 개발한 정신건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2$ -test,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학생이 50.5%, 여학생이 49.5%였고, 5학년이 48.4%, 6학년이 51.6%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관련 특성으로는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이 40.0%로 가장 많았고 처음 시작 시기는 3-4학년 때가 66.0%였다. 인터넷 사용이유는 이메일 40.3%, 게임 37.5%순이었다.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중독이 4.5%, 중독 경향이 38.7%, 비중독이 56.8%였다.

3. 대상자의 정신건강지수의 범위는 26~86점이었으며, 평균은 47.8점이었다.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자아척도의 점수범위는 24~85점, 평균 51.3점이었고, 사회적지지척도의 점수범위는 2~36점, 평균 21.5점이었으며, 정신병리척도의 점수범위는 0~141점, 평균 46.0점이었다.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라 정신건강지수 ( $F=34.01$ ,  $p= .000$ )와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자아척도 ( $F=17.63$ ,  $p= .000$ ), 사회적지지척도 ( $F=4.58$ ,  $p=$

.011), 정신병리척도 ( $F=57.83$ ,  $p= .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 $\chi^2=57.28$ ,  $p= .001$ ), 학년 ( $\chi^2=9.30$ ,  $p= .010$ ), 학업성적 ( $\chi^2=34.39$ ,  $p= .001$ ), 가족분위기 ( $\chi^2=26.27$ ,  $p= .001$ ), 어머니의 학력 ( $\chi^2=14.04$ ,  $p= .029$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사용시간 ( $\chi^2=104.02$ ,  $p= .001$ ), 인터넷 사용이유 ( $\chi^2=77.05$ ,  $p=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정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 ( $t=2.69$ ,  $p= .007$ ), 학업성적 ( $F=41.82$ ,  $p= .000$ ), 생활수준 ( $F=49.89$ ,  $p= .000$ ), 가족분위기 ( $F=52.40$ ,  $p= .000$ ), 아버지의 학력 ( $F=8.55$ ,  $p= .000$ ), 어머니의 학력 ( $F=11.50$ ,  $p= .000$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점수와 정신건강정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여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정도는 낮았다 ( $r=-0.342$ ,  $p= .000$ ). 또한 인터넷 중독 점수와 정신건강의 하위척도들간의 관계를 보면, 인터넷 중독 점수와 자아척도 ( $r=-0.256$ ,  $p= .000$ )와 유의한 역상관계를 보였고 정신병리척도 ( $r=0.411$ ,  $p= .000$ )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은 인터넷 중독정도가 심각한 편이었으며, 중독정도가 심할수록 정신건강지수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인터넷 중독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차원에서 정신건강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봉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옥순, 홍혜영, 강형분. 정보사회와 청소년 I : 통신 중독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8.

- 김진순. 초등학생의 인터넷중독과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재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PC통신 중독 실태와 행동특성.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웅장.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과 자아 존중감 및 정신증상 차원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라민오.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병훈, 박희석, 최현, 차은선, 위경선, 임수진. 광주지역 청소년 인터넷 활용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실, 2001.
- 서주현.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원영.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안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왕일.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양소남. PC통신 이용자의 통신중독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명수, 오은영, 조선미, 홍만제, 문재석.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의학 2001; 40(4): 616-626.
- 이봉건. 가상현실에서의 정신병리적 문제. 대학생활 연구 1997; 15: 49-60.
- 이봉건.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1999.
- 이선애.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2001; 7(1): 57-83.
- 이소영.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시형, 김진학, 정현희, 이세용. 청소년 정신건강지수 개발 연구.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 윤영민.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차 정책포럼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문제와 대책", 2000.
- 이주연. 일반 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2000; 14(2): 91-110.
- 임효정. 사이버 의존 집단과 비 의존 집단간의 심리 특성 연구 - 대인예민성과 우울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재희.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정보통신부.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1.
- 정순복. 일 도시 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1; 10(3): 352-367.
- 최민정. 인터넷 중독적 사용과 우울감, 자기효능감 및 감각추구성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02.
- 황상민. 사이버 공간의 심리와 교육활동의 변화. 교육마당 21 2000; 4월호: 100-111.
- 황수정.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Aderson, K. J.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 Am Coll Health 2001; 50(1): 21-26.
- Greenfield, D. N. The net effect: Intetnet addiction and compulsive internet use. 2000. <http://www.virtual-addiction.com/neteffect.htm>.
- King, S. A.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1996. <http://www.concentric.net/~Astorm/iad.html>.
- Orzack, M. H. Computer addiction services. 2002. 07.26. <http://www.computeraddiction.com/>.
- Powers, S. I.; Hauser, S. T. & Kilner, L. A.

- Adolescent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1989; 44(2): 200-208.
- Yang, C. K. Sociopsychiatr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computers to excess. *Acta Psychiatr Scand* 2001; 104: 217-222.
-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August; 1996a.
- Young, K. S.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1997.
- Young, K. S. & Rodgers, R. C.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ril; 1998.
- Young, K. S. Caught in the net. 1998. 김현수 역. *인터넷 중독증*. 서울: 나눔의 집; 2000.
-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Jackson(Eds.), *Innovation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999; 17: 19-31.
- Young, K. S.; Pistner, M.; O'Mara, J. & Buchanan, J. Cyber-disorders: The mental health concern for the new millennium. Paper presented at 107th APA convention, August; 1999.
- Young, K. S. Center for on-line addiction. 2002a.04.04.  
<http://netaddiction.com>.
- Young, K. S. How to deal with net compulsions. 2002b.09.14.  
[http://www.netaddiction.com/net\\_compulsions.htm](http://www.netaddiction.com/net_compulsions.htm).
- Young, K. S. Men, Women, and the internet: Gender differences. 2002c.09.14.  
<http://www.netaddiction.com/>.